

2023-10-23 (2023-38호)

10월 23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달러의 엷박자 지속될까... 중동 사태 관건

서울, 10월23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그리고 국내외 증시 움직임을 살피며 상·하단 저항력을 테스트하는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40-1,370원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인 5%대로 치솟으면서 국제 금융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런 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 이후 중동 사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어딜 봐도 달러 강세 압력이 커질 여건이다. 하지만, 지난주 달러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약 0.5% 하락했다. 즉, 달러에 대한 강한 추진력이 걸리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주간 보고서에서 안전자산 선호 수요에 달러가 수혜받지 못한 데 대해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 경로에 대한 기대 하락과 현재로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지난 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보다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확산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혼란이 초래될 경우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달러 강세 압력 조절로 달러/원은 연고점을 가지권에 두면서도 상단 저항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수급 저항도 확인되면서 전반적으로 역내 시장심리 풀림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역시 미국 채권금리와 달러 향방이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한편 이 과정에서 국내외 증시 반응도 관건이다.

금주에는 글로벌 S&P제조업 PMI가 발표되고, 특히 미국 3분기 GDP(속보치)와 9월 PCE 물가지표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돼있다.

한편 국내 지표로는 9월 생산자물가, 3분기 GDP(잠정치) 등이 나오고, 23일, 27일에는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6일과 27일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국내외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0월23일(월)

- ⊙ 관세청: 10.1~2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국정감사

10월24일(화)

- ⊙ 한국은행: 2023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 기획재정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9:00)
- ⊙ 한국은행: 2023년 9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 팬데믹과 Job-rich recovery(2023-27호) (12:00)

10월25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06:00)
- ⊙ 통계청: 2023년 8월 인구동향·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12:00)

10월26일(목)

- ⊙ 한국은행: 2023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2차관 국정감사 (10:00)
-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 (비통방, 10:00)
- ⊙ 한국은행: 2023년 11월중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 ⊙ 기획재정부: 2023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0월 발행실적

10월27일(금)

- ⊙ 한국은행·금융위원회: 종합감사
-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2차관 국정감사 (10:00)
- ⊙ 금융감독원: 원장 종합국정감사 (10: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0월23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0월23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9월		-0.16
10월23일	23: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10월	-18.3	-17.8
10월24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10월		48.5
10월24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10월	49.5	49.8
10월24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10월	49.9	50.1
10월25일	17:00	유로존	총유동성(M3) 공급 증가율	9월	-1.7%	-1.3%
10월25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9월		1.0%
10월25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0월16일주간		166.9
10월25일	21: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9월		1.473M
10월25일	23:00	미국	신축주택판매	9월	0.680—	0.675M
10월26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9월	1.5%	0.1%
10월26일	21:30	미국	GDP속보치	3분기	4.2%	2.1%
10월26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16일주간	209k	198k
10월26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 MM	9월	-1.3%	-7.1%
10월27일	08:30	일본	도쿄 CPI	10월		2.8%
10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9월		-11.7%
10월27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9월	0.4%	0.4%
10월27일	21:30	미국	소비 MM	9월	0.5%	0.4%
10월27일	21:30	미국	PCE 물가지수 MM	9월	0.3%	0.4%
10월27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10월	63.0	63.0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0월23일 (월)

- ⊙ 휴장국가: 홍콩, 뉴질랜드

10월24일 (화)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10월 비제조업 기업 전망 서베이 결과 발표 (오후 9시30분)

10월25일 (수)

-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오후 11시)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그리스 중앙은행 공식 만찬서 연설 (26일 오전 2시)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2023년 모이니한 사회과학 및 공공정책 강의 행사 인사말 (26일 오전 5시35분)

10월26일 (목)

-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결정 발표 (오후 9시15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오후 9시45분)
- ⊙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경제의 경제학 XII 컨퍼런스 개회사 (오후 10시)

10월27일 (금)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경제의 경제학 XII 컨퍼런스 2일차 개회사 (오후 10시)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로서밋 참석

## ▶ 금주 세계 주요 이슈

### ⊙ 여전히 불안한 중동 상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시장은 이번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며 불안해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의 공포 지수인 VIX지수.VIX는 투자자들이 아직은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만큼 긴장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유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동의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고조되면서 지난 18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3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번 분쟁이 확대되면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결정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

며칠 내 발표될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경기 약세를 가리킬 경우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다.

### ⊙ ECB 정책회의

오는 26일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회의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중동 분쟁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방해할 가능성과 경제 약화 여부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필립 레인은 ECB가 통화정책 완화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트레이더들은 ECB가 적어도 지금은 잠시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

ECB가 지난 10차례 회의에서 매번 예금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책결정자들도 지금까지의 통화 긴축 영향을 평가하면서 금리를 동결하리라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한편 25일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대형주 실적

올해 미국 주가지수 상승을 이끈 핵심 종목들이 이번 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24일에, 메타플랫폼은 25일에, 아마존은 26일에 각각 실적을 발표한다. 이들 종목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와 함께 올해 S&P500의 11%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에 실적이 실망스러울 경우 광범위한 여파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코카콜라, 제너럴모터스, 머크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상반기 미미했던 미국 기업 이익이 전반적으로 회복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시장은 또한 미국의 3분기 GDP와 9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등의 데이터를 통해 경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 중국 경제와 부동산 부문 불확실성

중국의 9월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과 3분기 GDP 데이터가 전망을 상회한 이후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보이는 듯 했으나 부동산 부문의 혼란은 중국의 5% 성장 목표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부문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국 본토 주가는 거의 1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비구이위안의 채무 불이행 기한이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지만, 시장은 다음 주자가 누구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만 지금까지 나온 부양 조치들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 아르헨티나 대선

시장은 22일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율이 138%에 달하고, 금리는 133%이며, 암시장 폐소화 가치는 올해에만 60% 이상 하락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아르헨티나가 10번째 디폴트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맺은 43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존립도 위태롭다.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깜짝 승리한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압도적 우위는 점하지 못해 좌파 집권당의 세르히오 마사 후보와 11월에 결선 투표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그래프/분석) - 美 국채금리 5%가 시장에 주는 타격

뉴욕, 10월20일 (로이터) -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 주식부터 부동산 시장까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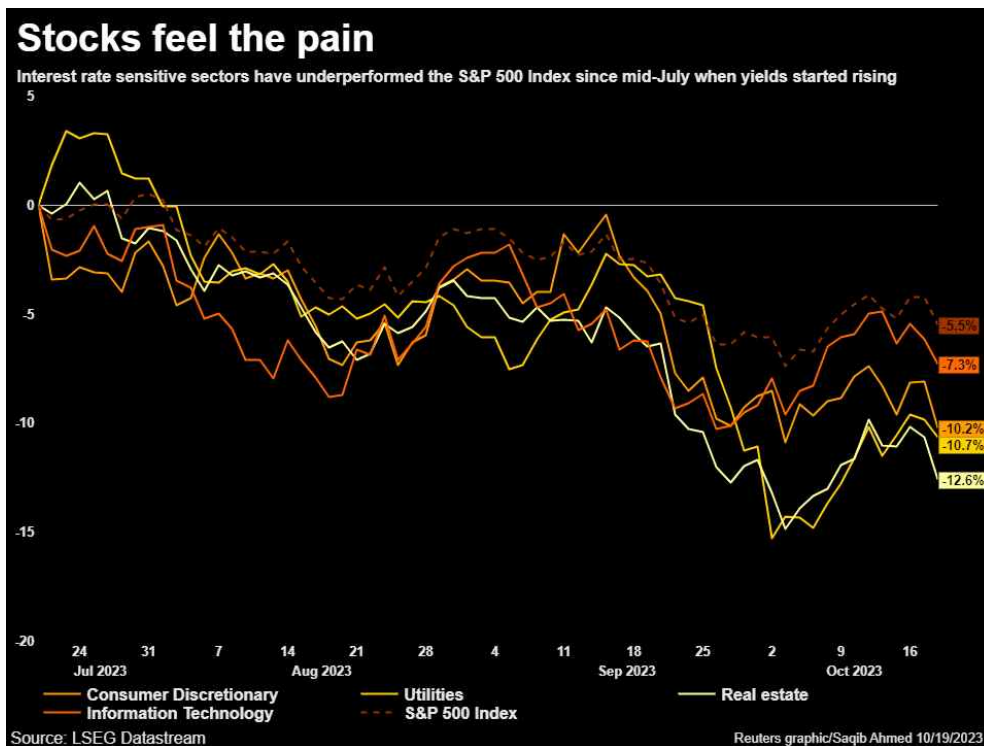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9일(현지시간) 2007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에 도달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더 높게 더 길게' 유지하리라는 전망과 미국 재정 우려 확대가 주된 요인이다.

25조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시장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멀어지면서 미국 증시 S&P500지수는 올해 고점 대비 약 7% 하락했다. 또 모기지 금리는 20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다.

뉴욕 TD증권의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인 제나디 골드버그는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 대해 매우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며 "더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될수록 무언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라고 느끼지는 않는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음은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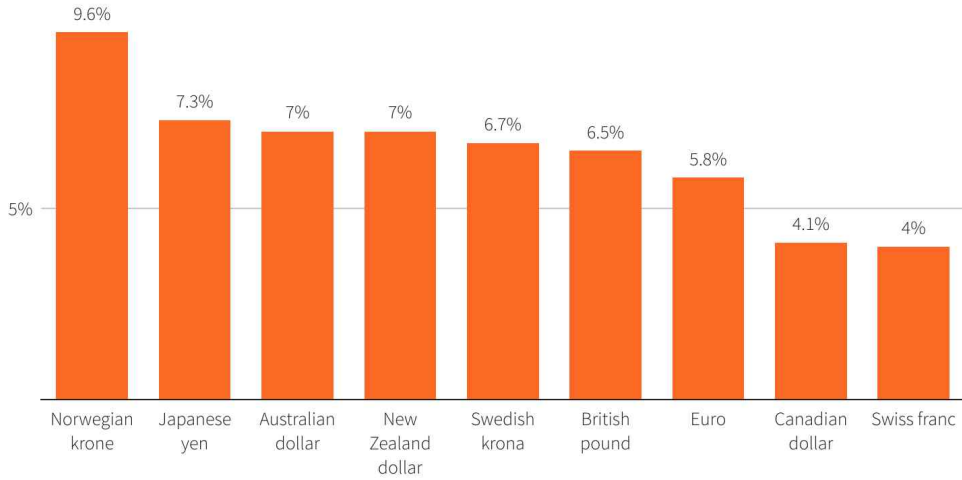
국채 수익률 상승은 기업과 개인의 신용 비용을 높여 금융 여건을 타이트하게 함으로써 주식 및 기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는 높은 금리가 전기 자동차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날 테슬라 주가는 9% 넘게 급락했다.

투자자들이 국채로 몰리면서 유틸리티 및 부동산과 같은 고배당 업종이 최악의 타격을 입었다.

### King dollar

The surge in Treasury yields has boosted the US dollar against all G10 currencies.



Note: U.S. dollar's performance vs respective G10 currencies since July 19  
Source: LSEG | Reuters graphic/Saqib Ahmed 10/19/2023

달러는 7월 중순 국채 수익률 상승이 가속화된 이후 G10 통화 대비 평균 약 6.4% 상승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강세를 측정하는 달러지수는 11개월 만의 최고치 부근을 가리키고 있다.

달러 강세는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고 미국 수출업체와 다국적 기업의 재무제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통화 가치를 절하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다른 중앙은행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

지난 몇 주 동안 트레이더들은 올해 달러 대비 12.5% 절하된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를 막기 위해 일본 당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주시해 왔다.

BofA 글로벌 리서치 전략가인 아타나시오스 밤바키디스는 "현 정책 긴축 사이클 동안 달러와 금리의 상관관계는 긍정적이고 강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택 대출인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이자율은 2000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아 모기지 신청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강력한 고용 시장과 견고한 소비자 지출을 특징으로 하는 탄력적인 경제에서 주택 시장은 연준의 공격적인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이다.

일례로 미국의 9월 기존 주택 판매는 13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 Widening spreads

Surging U.S. Treasury yields have caused high yield spreads to widen



Source: LSEG | Reuters graphic/Saqib Ahmed 10/19/2023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회사채와 같은 더 위험한 자산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신용 시장 스프레드가 확대됐다. 신용 스프레드는 올해 은행 위기 이후 확대되었다가 이후 몇 달 동안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ICE BofA 하이일드 지수는 4개월 만의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연준 정책에 대한 전망이 바뀌면서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미국 정부 지출 확대 전망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채권 발행 급증 예상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국 국채의 예상 변동성을 측정하는 MOVE 지수. MOVE는 4개월여 만의 최고치에 근접했다. 주식 변동성 또한 증가하여 CBOE 변동성 지수. VIX는 5개월 만의 최고치로 상승했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그래프/분석) - 亞 중앙은행들 자국통화 방어로 외환보유고 감소

싱가포르/뭄바이, 10월17일 (로이터) -

올해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 강세에 맞서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고가 수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줄었지만, 시장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거나 자본 유출을 억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흥 아시아 통화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 방어와 매파적인 연방준비제도가 뒷받침하는 달러 강세 사이에서 올 한 해 동안 매우 변동성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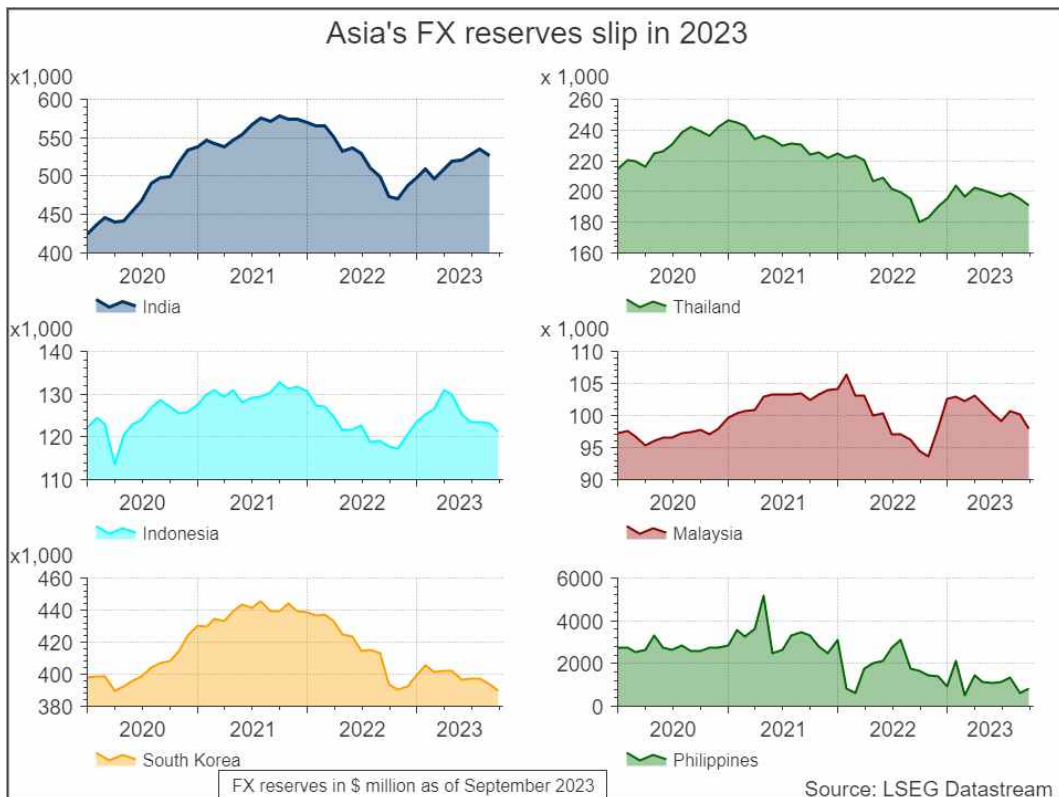
JP모간의 분석가들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통화 안정을 위해 지난 두 달 동안 3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매각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달러 수익률이 상승하고 통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신흥시장의 수익률 하락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을 진정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8월 아시아 현지통화 채권에서 27억달러가 순유출됐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인도, 태국의 채권시장의 순매도 규모가 2022년 10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외환보유고는 아시아 전역에서 감소했다. 9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41.2억달러로 2022년 10월 이후 가장 적었고,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1349억달러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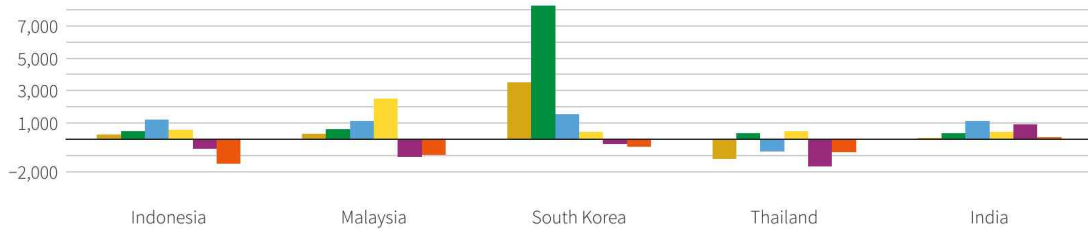
하지만 달러 강세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다른 통화의 가치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모두 개입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 Monthly foreign investment flows: Asian bonds

In \$ million

● Apr 23 ● May 23 ● Jun 23 ● Jul 23 ● Aug 23 ● Se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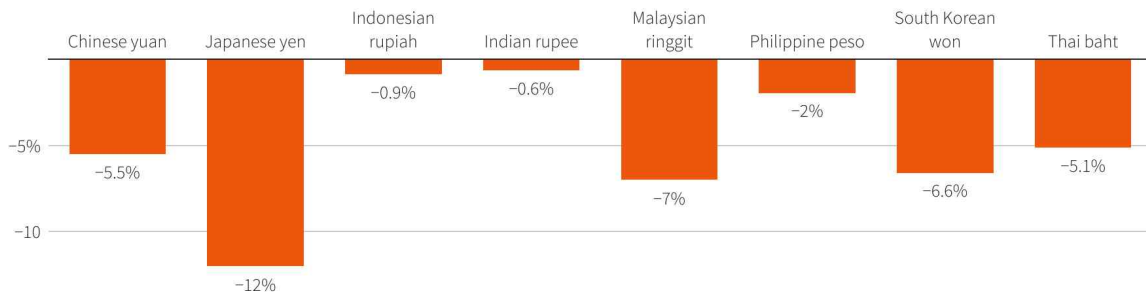


Sources: South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donesia Finance Ministry; ANZ Research; The Thai Bond Market Association; Bank Negara Malaysia; LSEG

브래드 베치텔 제프리스 글로벌 외환 헤드는 "말 그대로 아시아의 모두가 이제 시장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달러는 훨씬 더 상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달러 대비 절상됐던 몇 안 되는 아시아 통화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올해 들어 1% 정도 절하됐다. 원화는 5% 이상, 태국 바트도 5% 가까이 절하됐다.

## Dollar's hot run takes a toll on Asian currencies in 2023



Note: Asian currencies YTD performance vs U.S. dollar  
Source: LSEG | Ankur Banerjee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중앙은행은 투기성 외환 거래에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지난 한 달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다.

인도의 외환 보유고는 10월6일 기준 5847.4억달러로 5개월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례회의에 참석한 샹티칸타 다스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신흥국 중앙은행은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 수시로 통화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작년 10월보다는 많은 수준으로 여전히 중앙은행에 충분한 실탄이 남아있다.

그러나 통화 변동과 멈출 수 없는 강력한 달러 랠리와 싸움이라는 과제도 올해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서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희망을 가로막고 있다.

아난다 미트라 BNY멜론투자운용 아시아 매크로 및 투자 전략 책임자는 올해 아시아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사라지고 2024년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 개입으로 유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게 현실이다...이는 금리 인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